

# 사회민주주의하고 수정주의는 같은 것인가?

NRA



1. 사회민주주의는 원래 1848년 혁명당시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이 보통투표권을 위시로 한 기본 권리의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운동으로서 당시 가장 급진적인 사회운동이었다.
2. 이후 1880년대 독일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3. 한편 비슷한 시기 영국에서는 사회주의의 실현을 급진적인 정책이 아닌 완만한 실행과 개혁으로 이루어진다는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시작되었다.
4. 1890년대초 영국으로 망명한 베른슈타인은 (본인은 부정했지만 후대 학계는 영향력을 꽤 미쳤다고 봄)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영향과 자본주의의 변화를 보고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를 부정하며 독일 사회민주당은 사회 개혁에 중점을 기울여야한다는 '수정주의'를 공언한다. (참고로 본인은 이것을 '비판적 사회주의'라고 언급함.)
5. 이런 수정주의 논쟁은 1903년 드레스덴 전당대회에서 "계급모순은 쇠퇴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되며 이론적으로는 패퇴하고 수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출당을 위시로 한 처벌이 가해짐.
6.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 레닌주의가 득세하면서 각지에서는 급진적인 무력 혁명시도가 발생함. 이에 대해서 온건파는 공화국

지지, 강경파는 소비에트 체제를 주장하며 갈라졌으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스파르타쿠스단 봉기.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부분 실패로 끝남.(근데 이걸 두고 좌파대분열이라고 보는건 넌센스지. 볼셰비키가 다른 좌파 수천명씩 죽인건 왜 무시하실까)

7. 이후 1930년대 중반 소련에서는 기존의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개량주의로 선언하며 기존체제에 대한 변혁의지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판단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여기에서 기원함.

8.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페이비언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영국 노동당은 국가에 대한 개입, 주요산업 국유화, 복지정책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개혁정책을 실시함.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시작임. 또한 냉전으로 인하여 각지의 사회주의 계열 정당은 공산화를 포기하였고 1962년 독일 사민당도 계급투쟁노선을 완전히 포기함.

==

즉 따지자면 둘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에서 기원한다는 점에서는 같음. 하지만 전자는 엄연히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무산계급 주도로 사회를 변혁해야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국가는 무산계급을 위해 존재해야한다.'라고 보는 점에서 다름. 방법론적은 같지만 해석의 시각과 궁극적인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같은 점이라고 볼수는 없지.

뭐 말했듯이 베른슈타인은 헬창이니까 같다고 볼지도 모르겠다.